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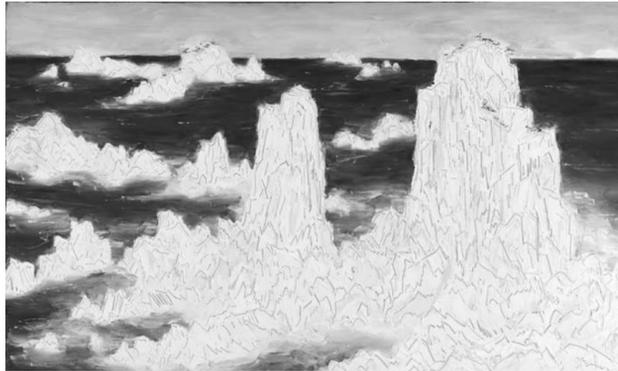
# 장자의 눈으로 본 명작 속 인물들의 고뇌

장자, 고뇌하는 인간과 대면하다

정용선 지음



철학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를 연구한다. 반면 문학은 언어를 대대로 인간의 삶을 형상화한다. 전자가 지적인 학문이라면 후자는 감성적인 예술이다.



『장자 고뇌하는 인간과 대면하다』는 장자 철학의 눈으로 알폰스 도데, 가브리엘 마르케스, 알베르 카뮈 등 작품 속 인간의 고뇌를 읽어낸다. 송필용 작 <광주일보 자료사진>

작가와 그 작가가 창조해낸 문학작품 속 분신들을 탐구하는 책이 발견됐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 전국시대 사상가 장자 등의 사상을 통해 철학적으로 재해석했다는 점이다. '장자, 제자백가를 소요하다'의 저자 정용선 박사가 펴낸 '장자 고뇌하는 인간과 대면하다'는 장자철학을 비롯한 다양한 사유를 종합무늬 풀어낸다. 책에 등장하는 작가들은 세계 문학사에 빛나는 이들이다. 알폰스 도데, 가브리엘 마르케스, 알베르 카뮈, 엔도 슈사쿠 등으로 저자는 이들 작가들과 작품을 통해서 인간의 고뇌를 읽어낸다. 저자는 이들 작가와 작품을 어떻게 만났고 그 작품 속의 고뇌하는 인간과의 만남을 통해 무엇을 느꼈는지 이야기한다. 또한 이들 작품이 독자로서의 저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속고한다. 책은

한마디로 저자가 장자를 만나 새롭게 트인 눈을 가지고 해석해내는 문학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다. 먼저 저자는 위대한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 속 고뇌하는 인간을 읽어낸다. 우연한 계기로 만난 작가 프리모 레비('죽기 율표'), 선배에게서 선물 받은 책을 통해 깊이 알게 된 알폰스 도데('풍차방앗간편지'), 보르헤스를 읽다가 떠오른 가브리엘 마르케스('백년 동안의 고독'), 난해한 서양철학의 답답함을 해소해준 알베르 카뮈('이방인')와 그의 작품을 다룬다. "말란 쿤데라는 소설의 종말을 말하는 서구 작가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한

다. "책꽂이에 마르케스의 '백년 동안의 고독'을 꽂아두고 어떻게 소설의 죽음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라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딱이나 길고 방대한 이 책은 인물들의 관계를 마치 가지 많은 수형도처럼 복잡한 그림으로 그려가며 읽지 않으면 파악이 힘들 정도로 복잡했다." 저자인 정 박사는 작품 속 고뇌하는 인간들의 삶과 작품 속 배경이 되거나 계기가 되는 작가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계기로 놀라운 이야기꾼 마르케스를 새롭게 만나고 프리모 레비의 '이상한 미덕'을 발견한다. 두 번째로 저자는 인간을 철학의 눈과

문학의 시선으로 읽어낸다. 장자 철학을 위시해 불교철학, 스피노자, 하이데거, 한나 아렌트, 미셸 푸코, 비트겐슈타인, 레비스트로스, 안토니오 그람시 등이 제시하는 개념과 이야기를 풀어간다. 저자가 작품을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과정은 철학적 사유만 동원되는 것은 아니다. 시적인 은유가 어우러지며 읽는 이에게 잔잔한 감동을 준다. 한마디로 시와 문학과 철학이 어우러져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그리스도교적 시각으로 동-서양 관계를 고찰한 엔도 슈사쿠를 탐색하는 글에는 영가현각 선사의 증도가가 덧붙여져 있다. "불속에서 피어난 연꽃이아/ 끝내 무너지지 않는다"에는 신과 인간에 대한 이해의 지평이 담겨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작가들의 작품을 매개로 자신의 삶을 읽어낸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데 달아 있다. "세상을 온 몸으로 겪었다고 생각했던 20대 이후의 삶에서도 그 경험을 다시 정리하고 소화하는 과정에 또 다시 구원이 되어준 것은 책들이었다. 나를 구원해준 책을 쓴 작가들. 지금의 나에게 영향을 준 것은 바로 그 작가들의 삶과 정신이 아닐까." <빈번책방·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1년만 나를 사랑하기로 결심했다=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알았지만 바로 잡는 법을 몰랐던 저자는 그날 이후 1년 동안 자신 앞에 놓인 모든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몸무게부터 인생관까지 모든 것을 바꿔나갔다. '딱 1년만'이라는 전제는 저자를 행동하게 만들었고,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간 저자의 이야기를 통해 각자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책이다. <부키·1만5800원>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의 대표작인 '자유론'은 출간된 지 15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큰 사랑을 받는 책이다. 아니, 시간이 갈수록 더욱 큰 사랑을 받고, 책의 가치는 점점 더 빛을 발한다. 이 책은 시민과 국가의 관계, 즉 시민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되고, 국가의 간섭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와이즈베리·1만6000원>



▲변화의 시대를 공부하다="한반도 대전환의 국면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가 전세계적 관심사가 된 이래, 대전환의 시기에 남북관계와 한국사회는 어떤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한반도 변혁을 위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분단체제론'과 '변혁적 중도주의'의 관점으로 정리한 책이다. <창비·1만5000원>

▲그리고 밤은 되살아난다=도시의 어둠을 파헤치는 외로운 탐정의 고독한 수사가 펼쳐진다. 어둠 속에 잠긴 비정한 도시, 차가운 말을 토크 내뱉는 무심한 탐정,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는 문체로 형상화된 등장인물, 가슴이 서늘해지는 리얼리티 등이 돋보인다. 하드보일드 특유의 스타일을 살리면서도, 탄탄한 구성으로 추리소설적인 즐거움도 선사한다. <비채·1만2000원>

# 삶과 이별을 준비하는 노인의 자세

왜 자꾸 죽고 싶다고 하세요,

할아버지

하디 케이스케 지음, 김진아 옮김



지가 있다. 유일하게 돈을 버는 엄마가 출근하고 나면, 집에는 겐토와 할아버지 단둘이만 남게 된다. 할아버지와 같이 산 지 3년이 다 되지만, 겐토는 할아버지의 무기력한 모습에 도무지 적응이 되지 않는다. "안 아픈 데가 없어, 이제 죽어라, 죽기만 기다리고 있다니까." 할아버지가 입에 달고 사는 말 "늙으면 죽어라..."는 겐토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겐토의 머릿속에 엉뚱하고 위험한 생각이 떠오른다. 그는 할아버지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정말로 할아버지가 죽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뭔가를 도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할아버지의 평온한 존엄사를 위해 겐토는 간병일을 하는 다이스케를 만난다. 다이스케는 이런 말을 한다. 환자를 과하게 간병해 움직임을 막으면 신체 기능이 쇠약해져 죽음이 이른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겐토는 할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 '과한 간호'를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겐토는 죽겠다는 타령만 하는 할아버지가 삶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순간을 목격한다. 간병인의 몸은 은근슬쩍 만지는 성적인 욕구까지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고통을 아무리 참고 극복해낸다 하더라도 그 끝에서 노인들을 기다리는 건 죽음밖에 없다. 그런 사람들의 절실한 소원을 건강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아무리 괴로워도 끝까지 목숨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끝에 박힌 말을 미래가 없는 노인들에게 하는 것이야말로 근시안적인 사고가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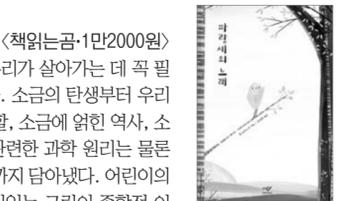
사실 고령화와 저출산의 재앙이 초래할 문제는 수많은 통계자료와 연구서들이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통계자료와 연구 논문은 수치에 불과할 뿐 이를 인간의 문제에 적용해 토크하게 풀어내는 것은 문학과 영화, 드라마 등을 비롯한 문화의 영역이다. 인간 내면의 미세한 움직임과 관계에서 파생되는 감정의 소용돌이는 현대인들의 고뇌와 갈등을 역동적으로 들여다 보게 해준다. 작품을 옮긴 번역가 김진아는 할아버지의 '죽고 싶다'는 말의 뜻을 "너도 언젠가는 늙지 않느냐"라고 자문한다. 아마도 이 말은 오늘을 사는 모든 이들에게 하는 말인 것 같다. "늘어나는 노인과 청년들의 노인 부양 문제는 겐토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몫으로 남겨진 사회의 몫이 아닐까. 이 작품을 그러한 문제에 선명히 답변을 내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그려내며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힘을 가졌다." <문학사상·1만2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어린이·청소년 책

▲친구가 미운 날=단짝 친구와 갈등을 겪는 아이의 심리를 섬세하게 그린 책이다. 어린이의 마음을 섬세하게 표현한 그림책으로 널리 사랑받은 작가 가사리 마리가 주인공 공하나의 목소리를 빌어 친구와의 관계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서운함, 불안함, 미움, 질투 같은 복잡한 감정을 담담하게 그려준다. <책읽는곰·1만2000원>



▲소금아, 정말 고마워=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소금'에 관한 모든 것을 담았다. 소금의 탄생부터 우리 몸과 소금의 관계, 소금의 성질과 역할, 소금에 얽힌 역사, 소금의 다양한 쓰임새 그리고 소금과 관련한 과학 원리는 물론 역사, 사회, 문화, 경제, 환경까지 담았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꼭 맞는 친절한 설명과 재미있는 그림이 종합적 이해를 돕는다. <플라바람·9000원>



▲파랑새의 노래=파랑새가 들려주는 행복의 노래를 담은 그림책이다. 어린 파랑새의 험난한 여행을 통해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행복은 늘 함께하는 가족과 같은 것이며 특별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일상에 내재해 있음을 일깨워 준다. <미디어창비·1만2000원>

**착한보청기협동조합**

#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